문화진흥사업 대폭 바뀐다

내년부터 인센티브 등 지역배분 새 기준 적용…광주 8억·전남 11억

지역문화포럼…신규사업 "수도권 중심 기획" 쓴소리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0년 지역문화진흥예산 지원 정책이 대폭 바뀐다.

위원회는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 기금 지원 배분 기준 요소와 가중치를 대폭 손질, 지역 배분율을 높였으며 레지던스 프로그램등 신규사업도 늘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는 3~4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지역문화포럼을 열고 2010년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 기금 배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 예산의 '서울 집중, 지방 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기금 배분과 관련, 논의들이 전개됐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수도권 중심 기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위원회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기금 배분 기준 문제…광주 8억원(안) 배당=내년도 진흥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10억원이 늘어나 193억원이다. 위원회는 기금 배분 기준요소로 ▲인구수(27%) ▲재정의존도(36%) ▲예술인수(27%) ▲인센티브(10%)등을 새롭게 적용, 시·도별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는 서울 집중현상이 약화됐지만 전체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은 70억원(38.4%)에서 18억3천만원이 줄어든 50억7천만원(26.9%)을 배당받는다. 광주는 5억8천300만원보다 2억1천700만원이 늘어난 8억원(4.1%)을, 전남은 8억700만원보다 2억9천100만원이 늘어난 10억9천800만원(5.7%)을 배분받는다.

이날 포럼에서 백옥선(전북도청)씨 등 토론자들은 배분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토론자들은 예술인수의 경우 인구 비율이 20.6%인 서울지역 예술인수가 75.6%에 해당한다는 수치에 대해 반박했다. 예술인을 예총과 민예총 회원만으로 규정한 게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서울에 적만 두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많아 수치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예술인들의 위원회 사업 신청 건수, 지역별 공연·전시 실태 등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이라는 지원금의 당초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부한 서울 지역의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 신규 사업=내년에는 신규 사업이 늘어난다. 올해 서울·경기·인천에서 시범 시행됐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은 내년부터 확대실시된다. 상주단체 지원은 새로운 관객 개발 등 시너지 효과를 노린 프로그램으로 5천만원~1억5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되며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으로 통폐합, 공모·심의·집행·평가를 단일화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기금 배분율을 높이고 신규 사업을 늘리는 등 2010년 지역문화진흥예산 지원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사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열린 광주 지역 극단의 공연모습.

하지만 포럼에서 신규 사업의 경우 공연장 현황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기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최대원씨는 "지역 대표 공연장의 경우 이미 기존 입주단체들로 포화상태인 경우가 많아 상주 단체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사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전체 예산의 10%인 19억3천 만원을 최고 1억8천만원에서 6천200만원까지 차등 배분한다.

특히 매칭 펀드 등 지자체의 문화예산 책정과 관련,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어 각 시도가 문화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 위원회의 철저한 가이드 라인과 함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광주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위원회 측은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18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마운트버넌' 신화를 보고 싶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남쪽으로 26km 정도 내려가면 마운트 버넌(Mount Vernon)이란 사적지가 나온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1732~1799)의 생가다. 평소 마운트 버넌이 미국에서 최고라고 자랑할 정도로 워싱턴 대통령이 애착을 가졌던 곳이다. 실제로 지난 1797년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친 그는 '한번 더'를 외치는 국민의 바람을 뒤로하고 이곳에 내려와 여생을 보냈다.

하지만 워싱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마운트 버넌도 이내 시들해졌다. 생가, 농장, 정원 등 8천에이커에 이르는 광활한 저택이 유가족의 관리 소홀로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계절 꽃으로 가득했던 정원은 잡초들로 우거졌고 워싱턴의 유품과 가구들은 분실되거나 파손됐다. 수십여 년이 지나면서 주인 잃은 마운트 버넌은 미국인들의 기억속에 사라져갔다.

마운트 버넌의 '몰락'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 했던 사람은 인근에 사는 앤 파멜라 커닝햄(1816~1875)이라는 여성이었다. 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그녀는 힘들때 마다 마운트 버넌을 빛낸 워싱턴 대통령을 떠올리며 이겨냈다.

마운트 버넌의 재건에 올인하기로 한 그녀는 한 신문에 쓴 '남부의 여성들에게(The Ladies of the South)'라는 기고에서 모금운동을 제안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남부 여성들에게 전해져 기부금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일부 뜻있는 여성들은 ' 마운트 버넌 여성협회'(여성협회)를 결성해 워싱턴 생가의 지킴이로 나섰다. 매일 수십여명의 회원들이 마운트 버넌을 쓸고 닦았다. 마침내 1960년 회원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마운트 버넌을 국가유적지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연중 무휴로 개방되는 이곳에는 매일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방문객들을 맞는다. 마운트 버넌의 입장료는 성인 1인당 15달러.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매년 100만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찾는다. 연 100만명의 방문객 가운데 약 30%는 외국인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워싱턴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충실하게 담아낸 문화 콘텐츠 덕분이다. 200년 전의 거실과 서재, 심지어 화장실까지 고스란히 갖춰 놓은데다 맨션투어, 전시회, 음악회, 체험학습 등이 연중 펼쳐져 '문화상품'으로 손색이 없다.

최근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사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전남도는 신안 하의도 DJ 생가 주변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목포 노벨기념관, 김대중 광장 조성, 함평 인동초 공원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김 전 대통령의 생애를 기리는 국제학술대회와 김대중컨벤션센터내 김대중홀을 기념관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들 지자체의 추모사업은 후손들에게 DJ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쇠락해가는 워싱턴의 생가를 '글로벌 유적지'로 되살려낸 주인공은 바로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머지않아 하의도 생가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국판 '마운트 버넌 신화'를 기대한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우리동네에는 어떤 작가 있을까?

도서관협 전국 14개 지역 독자와의 만남 주선

"우리 동네에는 어떤 작가가 살고 있을까."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은철) 문학나눔사업추진반이 소외지역(계층)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작가와 독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니터링 문학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지역 보급처가 단순히 도서를 나눠주는 공간을 넘어 지역문학의 거점 역할과 문인과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모니터링 문학활동 프로그램은 우수문학도서에 선정된 문인들이 지역의 보급처를 방문해 글짓기 방법과 글쓰기 평가, 작품 낭독회, 문학영상 상영 및 문학난장 토론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오는 12일 공주에 있는 '봉현방과후 공부방'을 시작으로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18일 광주·전남현대문학연구소에서 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 이은봉 시인(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은 "이번 프로그램이 문학잡지 발간 등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시 낭송회와 창작론 강의·토론 등을 준비, 독자들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에서는 소설 '나는 여기가 좋다'의 작가 한창훈씨가 17일 왕조2동사무소 작은도서관을 찾아 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 문학나눔사업 추진반은 분기별로 우수문학도서를 선정, 선정된 도서를 구입해 작은도서관, 교정시설·복지시설, 대안학교 등 소외지역(현재 보급처 2,200여곳)에 보내는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문의 070-8633-905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은봉씨〉

〈한창훈씨〉

광주 전남·북 우수문학도서 모니터링 문학활동 일정

지역	작가	날짜	장소
순천	한창훈	9월 17일	왕조2동사무소 작은도서관
광주	이은봉	9월 18일	광주·전남 현대문학연구소
남원	정 양	10월 30일	실상사 작은학교
군산	김용택	11월 14일	나포마을도서관

여름날 아침 나팔꽃의 여린 움직임

임금배 첫 개인전

30여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임금배씨가 오는 10일까지 광주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임씨는 남도의 자연풍광과 꽃의 화려한 자태를 담은 유화 작품을 선보인다. 사실적인 묘사로 나팔꽃의 여린 움직임을 포착했고, 버려진 나무 둥치의 무늬에서는 시간이 쌓여 있는 듯한 고즈넉함이 느껴진다.

임씨는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한국화 특장대전, 전국공무원미술대전 등에서 입상했으며 전국경찰문화대전, 중국스케치여행전, 광주 가톨릭미술가회전 등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62-650-83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름꽃'

사회 이슈 런치토론

무등사랑, 내일부터 두달간

점심시간 막간을 이용해 사회 각 분야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런치토론이 8일부터 두 달간 일정으로 광주시 동구 대인동 무등사랑 2층 홀에서 열린다.

무등사랑 (사)인재육성아카데미(이사장 정찬용)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의 주제는 '도시 디자인'. 토론회는 점심을 먹으며 영상물을 시청하고 관련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열리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미리 접수해야 한다. 참가비는 식사와 차 포함 1만원. 문의 062-224-773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